

# 독일 정부 “1년 이상 실형 받은 난민은 추방”

대연정, 성폭력 종합 대책 마련

펠른 피의자들 난민 지위 박탈

북아프리카 위장 난민 범죄 많아

독일 대연정은 12일(현지시간)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종전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펠른 집단 성폭력 사건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펠른 사건 등 난민들의 범죄 가운데 시리아 등 중동 출신보다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출신의 소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 출신을 난민 지위 인정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저녁 현재, 전날 516건이었던 펠른 사건 피해접수 건수는 561건으로 또 늘었다. 개별 행위로 셈하면 653건이었고, 그 중 45%가량이 성폭력 관련 사항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법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입안한 대책은 살인, 상해, 강간, 성폭력, 상습 절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난민은 추방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은 최근 연례 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마인츠 선언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되는 난민은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민당은 선언에서 또 용의자들에 대한 저인망식 감시·수색을 강화하고 공공장소

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명시했다. 데메지에르 내무·마스 법무장관은 이날 중 내각의 결의를 거쳐 선언 내용을 연방의회에서 입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또한 성폭력 관계법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주거할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아가 정책협의회에서 펠른 사건 용의자들의 출신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압델말레크 셀랄 튀니지 총리에게 망명 허가가 나지 않은 이민자들의 튀니지

송환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펠른 사건을 주도한 난민 대다수가 북아프리카계로 보이는 가운데 용의자 중 모로코와 알제리 출신은 최소 17명으로 알려졌다. 펠른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에 따르면 펠른 경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13개월간 발생한 범죄 중 알제리·모로코·튀니지 출신 이민자들의 소행이 총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리아인의 범죄는 0.5%에 그쳤다. 랄프 예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내무장관은 “모로코·튀니지에서는 가족들이 장남을 독일로 보내 (유럽으로) 밀입국에 필요한 돈을 단기간에 벌어들여주는 경우가 많다”며 북아프리카계의 잦은 범죄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바마 “동맹국 공격하면 파멸에 이를 것”

신년 연설서 북한에 경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 국력의 우위와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북핵도발 등에 엄중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우리의 적이 강해지고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모든 말들은 허풍이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는 악의 제국보다 쇠약해지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더 위협받고 있다”며 “지

금은 위험한 시기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거나 어렵듯이 보이기 시작하는 슈퍼파워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동은 지금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펼쳐질 변형을 겪고 있고, 중국 경제는 과다기를 거치며 경제적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며 “러시아는 궤도로부터 서서히 이탈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떠받치기 위한 자원을 쏟아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파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면서도 “IS가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라며 “3차 세계대전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단지 뿌리뽑고 추적되며 파괴돼야 할 살인자나 미치광이로 볼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美 대북 제재안 통과…자금줄 차단 확대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이버공간에

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감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안보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1조 8천억 로도 열풍

12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주 프림과 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내의 로도 상점에서 파워볼 복권을 구입하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복권을 구입, 당첨되면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미국 전역에 복권 광풍을 몰고 온 ‘파워볼’의 잭팟(1등 당첨금)이 15억 달러(1조 8000억 원·이하 세전)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 日 여야 “협한 시위 규제법 제정” 한목소리

일본 여야 의원들이 일본 내 협한시위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13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신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일본 의원들은 군위안부 합의의 동력을 살려 재일한인의 중대 현안인 협한시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대표해 참석한 다카기 미치요(高木美知代) 중의원 의원은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과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2야당인 일본공산당의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서기국장은 “재일한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차별 행위는 하루라

도 빨리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정비를 제대로 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서정원 새누리당 의원도 “헤이트스피치와 같은 양국의 문제가 말끔히 이룬 시일에 정리되기를 기원한다”며 “일본 국회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이룬 시일안에 처리되도록 일본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열여붙었던 한일관계가 작년 11월 3년반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12월 군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해빙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작년보다 100명 가량 많은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작년 4명에 그쳤던 집권 자민당 의원이 이날은 7명 참석했다. 일본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현역 여성 정치인 중 한명인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중의원과 자민당 2인자인 간사장 출신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도 자리했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